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문제음주 예측요인 분석

김미영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nalysis for Factors of Predicting Problem Drinking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Mi-Young Kim
Dept. of Social Welfare, Halla University

요 약 문제음주는 개인의 정서적 문제와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며 사고나 상해, 주취폭력 등 주변인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은지 그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음주와 관련한 치명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무척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도에 실시된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데이터 중 음주경험이 있으며 AUDIT에 응답한 3,915명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와 인구사회학적,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문제음주의 예측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자의 36%가 문제음주군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경제적 상황과 자아존중감, 우울, 가족관계 만족 및 사회관계 만족이 문제음주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자아존중감 및 우울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 성인들의 문제음주군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문제음주, 음주행동, AUDIT, 한국복지패널, 로지스틱 회귀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factors which predict problem drinking on adults. Using the data on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or the 7th year, 3,915 people responded to the demographic factor, psychosocial factors and drinking behavior.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predictors of problem drinking. As a result, 36 percent of those surveyed showed that the problem drinking group. Gender, age, education, occupation, economic status, self-esteem, depression, and satisfaction of family and social relationships were correlated to alcohol use. In addition,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gender, age, education, job, self-esteem, depression were predicted problem drinking.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recommended practical counterplan that prevention of the problem drinking.

Key Words : Problem drinking, Drinking Behavior, AUDIT, Korea Welfare Panel Study, Logistic regression

* 이 연구는 2014년도 한라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Received 22 March 2017, Revised 21 April 2017

Accepted 20 May 2017, Published 28 May 2017

Corresponding Author: Mi-young Kim(Halla University)

Email: mykim@halla.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음주율은 2012년 기준 60.2%이며, 남성의 경우 문제음주자의 비중은 32.4%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1].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사고로 우리 사회는 연간 7조원이 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소모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여전히 음주와 주취문제에 관대한 문화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가정폭력, 약물남용, 범죄, 노숙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문제음주와 연관되어 있어[2], 문제음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개인의 음주를 설명하는 긴장감소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긴장을 감소하기 위한 대처의 방법으로 음주를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3]. 한편 Cox와 Klinger의 알코올 사용 동기모델에 의하면 사람들은 특정 가치의 성과를 얻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보았다[4]. 여기서 특정 성과란 긴장감소나 기분향상과 같은 음주로 인한 직접적인 화학적 효과일수도 있으며 또는 또래집단의 수용과 같은 간접적 효과일수도 있다. 즉 긴장감소가설에서 강조된 심리적 특성에 더하여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과 같은 사회적 특성 등 다차원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음주의 동기를 높인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음주량이나 빈도의 증가가 곧 문제음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음주란 “일반사회에서 허용되는 영양적 혹은 사회적 용도 이상의 주류를 과량으로 계속해서 마시므로써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만성적 행동장애”를 의미한다[5]. 즉, 문제음주는 알코올 사용장애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위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증가하는 음주행태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문제음주는 개인의 우울, 자살과 같은 정서적 문제와 신체적 질병, 사망을 유발하기도 하며 음주운전이나 실족과 같은 사고나 상해, 주취폭력 등 주변인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피해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러한 치명적인 손실을 예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 특성 및 심리적 요인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인 요인 및 개인-상황의 상호작용이 문제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의 유무, 경제적 상황은 문제음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다른 심리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문제음주를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일수록 폭음하며 더 주기적으로 음주하는 경향이 있고[2,6], 더 강한 음주동기를 가지고 있어[7] 문제음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남녀간 차이는 사회화 과정과 음주효과에 대한 인지적 기대가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8]. 또 음주시작연령이 빠르고 연령이 낮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였으며[9], 연령의 영향은 동거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10] 직접적 영향력 외에 다른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문제음주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졸이하의 학력자가 고위험 음주비율이 높으며[11], 여성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음주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수입이 낮은 경우[12] 알코올사용이 높게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수급자들의 문제음주는 빈곤의 장기화에 중요한 결정인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13].

문제음주를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음주제한의 중요성에 대한 약한 신념[14], 낮은 자기효능감과 낮은 자아존중감[12], 낮은 삶의 만족[14]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정서적 불안정, 부정적 사고 경향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특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15]. 이 외 고립감과 우울, 불안은 음주행위를 높일 뿐 아니라 문제음주자에게서 특징적으로 보고되는 특성이다.

문제음주와 관련된 사회적 요인은 상황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16]. 상황적 맥락으로는 혼자보다 집단으로 함께 음주할 때가 더 많은 양을 마시며, 술집이나 친구의 집, 파티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서 음주량은 더욱 증가한다. 문화적 맥락으로는 또래집단의 음주에 대한 규범[17], 과음과 폭음이 허용적인 직장문화, 직무관련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와 같은 근로환경 요인 등이 음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8]. 가족갈등이나 가족스트레스, 가족 내 폭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갈등, 대인관계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사회적응의 어려움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도한 음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19]. 이 외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음주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대로 가족관계와 사회관계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음주행동은 낮

아[20], 사회적 관계는 문제음주의 위험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다수 연구들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양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개인의 문제음주와 관련되어 있음이 검증되어 왔으나, 문제음주에 대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 지역사회 일반 성인 대상의 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음주의 폐해를 예방하고 문제음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의 문제음주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음주와 관련된 요인을 인구사회학적·심리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검증을 통해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상 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음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7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7차년도 조사는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732가구의 14,604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18세~65세미만 성인 8,055명 중 지난 1년간 음주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474명과 음주행동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666명을 제외한 3,9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주요변인 및 측정도구

2.2.1 종속변수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AUDIT

를 활용하여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을 선별하였다. AUDIT는 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한 알코올 사용장애 검사 도구로 총 10문항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21]. 총점이 8점이상인 경우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로 평가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다.

2.2.2 독립변수

(1) 인구사회학적 변인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였으며, 연령은 출생년도 변수를 나이로 재계산하여 산출하였다. 학력은 고교졸업 이하를 0, 대학재학 이상을 1로,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0,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1로, 직업은 직업이 있는 경우를 0, 직업이 없는 경우를 1로 더미변수화하였다. 경제적 상황의 경우 경제적 생활상태를 '매우가난(1)', '가난(2)', '보통(3)', '부유(4)', '매우부유(5)'로 묻는 한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심리적 변인

①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RSE) Scale이 활용되었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조사시점 현재의 느낌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33$ 이다.

② 우울감

우울감 측정 도구로는 CESD-11(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11)가 활용되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29$ 이었다.

(3) 사회적 변인

사회적 변인은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의 두 변인을 고려하였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생활실태, 만족 및 의식 문항' 중 가족관계 만족도를 묻는 1문항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를 묻는 1문항을 각각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만족(5)'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7.0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심리사회적 변인들이 각각 음주행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음주를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문제음주수준

분석결과 정상음주군은 총 2,509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하였으며, 음주 평균점수는 3.53점(SD=2.01)이었다. 반면 문제음주군은 총 1,406명으로 전체의 약 36%였으며, 음주 평균점수는 11.75점(SD=3.86)이었다<Table 1>.

<Table 1> AUDIT score of subjects (N=3,915)

Drinking Pattern	N (%)	M±SD
Normal alcohol use	2,509 (64.09)	3.53±2.01
Problem alcohol use	1,406 (35.91)	11.75±3.86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음주 차이

다음의 <Table 2>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차이를 교차분석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우선 성별에 따른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비율은 차이가 유의했으며($X^2=444.344, p<.001$), 남성의 경우 정상음주군과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여성의 경우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확연히 낮았다. 연령대에 따라 서도 40대 이상 집단에서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약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X^2=26.714, p<.001$). 학력의 경우 고졸집단에서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높았다($X^2=21.557, p<.001$). 결혼상태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직업은 직업이 있는 집단이 무직인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43.703, p<.001$). 마지막으로 경제적 상황은 ‘매우 가난’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군의 비율이 높아($X^2=17.387, p<.01$), 빈곤과 음주간 상관관

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915)

Variables	normal alcohol use		alcohol problem use		X ²
	N(%)	N(%)	N(%)	N(%)	
gender	male	1303(51.9)	1204(48.1)	444.344	***
	female	1206(85.6)	202(14.4)		
age	≤ 29	482(71.5)	192(28.5)	26.714	***
	30~39	673(65.3)	357(34.7)		
	40~49	685(60.1)	455(39.9)		
	50~59	524(63.1)	306(36.9)		
	≥ 60	145(60.2)	96(39.8)		
education	≤elementary	176(69.0)	79(31.0)	21.557	***
	middle school	227(63.9)	128(36.1)		
	high school	904(59.8)	606(40.2)		
	university	1124(67.2)	548(32.8)		
	postgraduate	78(63.4)	45(36.6)		
marital status	married	1614(63.0)	946(37.0)	3.476	
	single†	895(66.0)	460(34.0)		
job	employed	1898(61.4)	1192(38.6)	43.703	***
	unemployed	611(73.9)	216(26.1)		
Socioeconomic status	very poor (a)	111(51.6)	104(48.4)	17.387	**
	poor (b)	726(64.5)	400(35.5)		
	average (c)	1604(64.9)	867(35.1)		
	wealthy (d)	68(66.0)	35(34.0)		

*p<.05, **p<.01, ***p<.001

† : include divorced, separated, and bereaved

3.3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음주의 상관관계

조사대상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관계 만족도 변수를 살펴보았다 <Table 3>. 자아존중감은 평균 3.13점(SD=.37)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우울의 경우 평균 4.42점(SD=6.59)으로 임상적 우울의 기준점이 16점임을 감안할 때 평균점수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족관계 만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의 경우 각각 평균 3.92점(SD=.67)과 평균 3.81점(SD=.60)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3>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915)

Variables	Mean±SD
self-esteem	3.13±.37

이들 심리사회적 변인과 음주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r=-.141, p<.01$), 우울감이 높을수록($r=.089, p<.01$), 가족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r=-.038, p<.01$),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r=-.046, p<.01$) 음주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lcohol use and psychosocial variables of participants (N=3,915)

Variables	1	2	3	4	5
1. alcohol use	1				
2. self-esteem	-.141**	1			
3. depression	.089**	-.390**	1		
4. satisfactory of family relationship	-.098**	.329**	-.225**	1	
5. satisfactory of social relationship	-.046**	.401**	-.223**	.311**	1

* $p<.05$, ** $p<.01$, *** $p<.001$

3.4 문제음주 예측요인

문제음주를 예측 요인을 탐색적으로 찾아보기 위해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chi^2=335.164, df=9, p<.000$),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인 문제음주를 14.6% 설명하였다(Cox & Snell $R^2=.146$).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독립변수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문제음주균일 가능성이 낮았으며($B=-1.790, p=.000$), 그 승산은 .167로 약 83%가 낮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음주균일 가능성이 높았으나($B=-.012, p=.013$),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학력의 경우 기준집단인 고졸이하 집단에 비해 고졸이상 집단이 문제음주균일 가능성이 약 36.3% 낮았다($B=-.451, p=.000$). 직업이 있는 집단에 비해 직업이 없는 집단이 문제음주균일 가능성이 낮았으며($B=-.311, p=.013$), 그 승산은 .733으로 약 26.7%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음주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으며($B=-.372, p=.015$), 승산은 .689배였다. 우울은 높을수록 문제음주균의 가능성이 높았는데($B=.595, p=.000$), 승산이 1.813배로 높아 문제음주에 우울의 영향이 매우 높았다.

<Table 5> The result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N=3,915)

Variables	B	S.E	Wald	OR (95%CI)	p
gender†	-1.790***	.115	242.662	.167	.000
age	-.012*	.005	6.120	.988	.013
education†	-.451***	.116	15.139	.637	.000
job†	-.311*	.125	6.158	.733	.013
economical status	.148	.080	3.406	1.159	.065
self-esteem	-.372*	.153	5.915	.689	.015
depression	.595***	.150	15.715	1.813	.000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	.011	.071	.025	1.011	.876
satisfaction of social relationship	.061	.083	.534	1.063	.465
Constant	3.655***	.666	26.828	31.559	.000

-2 Log Likelihood = 2486.661

$\chi^2=335.164$ ***($df=9, p=.000$)

Cox & Snell R^2 .146

* $p<.05$, ** $p<.01$, *** $p<.001$

† : dummy variable

reference group: gender-male, education-≤high school graduate, job-employed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음주의 관련성을 검증하며 문제음주의 예측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예방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AUDIT로 측정된 조사대상자 전체의 음주 점수는 평균 6.486점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음주균이 총 1,406명으로 전체의 약 36%에 달하여 조사대상자의 1/3 이상이 이미 문제음주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 국민건강통계의 문제음주자 비율이 32.4%로 보고된 것과 비슷한 수치이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의 음주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학력, 직업유무 및 경제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유무에 따른 음주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심리사회적 변인으로 제시된 자아존중감, 우울,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는 음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음주수준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문제음주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문제음주를 14.6% 설명하였다(Cox & Snell $R^2=0.146$). 선행연구를 토대로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높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문제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음주동기[8]나 또래집단이나 근로환경[17,18] 등 상황적,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변수가 본 연구모형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음주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학력의 경우 고졸이하 집단이 고졸이상 집단에 비해 문제음주군일 가능성이 높았으며, 직업이 있는 집단이 문제음주군일 가능성이 높았다.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문제음주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보고되었던 경제적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은 문제음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선행연구에서 음주에 대한 남녀의 성차가 뚜렷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강한 음주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음주빈도나 주기가 더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7,22], 남성이 문제음주군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 특히 남성의 평균 음주행동점수가 문제음주군의 기준 점수인 8점에 상당히 근접함을 볼 때 우리나라 남성의 음주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사료되며 문제음주예방을 위한 개입에 있어 이러한 성별 차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문제음주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1]에서 사회생활이 활발한 30-50대의 문제음주율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같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연령별 차별화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예방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청년층과 직장 내 음주문화개선이 초점이 되는 장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농촌 등 노인인구밀집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23,24,25]. 학력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직 또는 생산직을 비롯한 일용직군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직업의 경우 직업이 있는 집단이 직업이 없는 집단에 비해 음주행동이 유의하게 높았다. 직업이 있는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더 넓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사회기술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최근 몇몇 알코올상담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전음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음주행동에 대한 스크리닝과 산업체 중심의 절주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하는 등 직장 내 건전음주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은 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27], 이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변인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문제음주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문제음주가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불러일으키며, 어린 시절에 학대를 경험한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음주횟수를 증가시키는 등 자아존중감은 음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우울 또한 높을수록 음주행동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우울한 기분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음주를 한다고 설명하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9]. 한편 우울이 알코올에 함유된 에탄올에 의한 효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하는 상반된 연구도 있어[20],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상호변인간 방향성 보다는 우울 변수가 문제음주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 결과가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적 변인이 문제음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본 연구결과는 문제음주예방을 위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제음주 예방을 위한 활동을 계획시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가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이 높은 대상층을 문제음주의 고위험군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융합적 헬스케어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통한 문제음주 고위험군의 예측[28]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홍보사업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9].

본 연구는 몇 가지 사항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우선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음주동기 및 음주에 대한

기대신념, 스트레스나 문화적 맥락과 같은 주요 변인은 모형에 포함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변인은 1문항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도 확보에 큰 제한점이 있었다. 이 외 중단연구를 통해 문제를 주로의 진입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명된다면 실천을 위한 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Halla University, 2014.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Korea Health Statistics 2012: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3).
- [2] H. M. Yoon, "Drinking Behavior and Factors That Influence Alcohol Us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Human ecology*, No.3, pp.1-15, 2000.
- [3] Conger, J. "Reinforcement theory and the dynamics of alcoholism." *Quarterl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 17, pp.296-305, 1956.
- [4] Cox, M., & Klinger, E.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7, pp.168-180. 1988.
- [5] S. K. Min, "Modern Psychiatry, Seoul: Ilchokak." 2006.
- [6] K. H. Seo, "Effects of Gender, Family Alcohol Use, and Motivation for Alcohol Use on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3, No.2, pp.205-213, 2002.
- [7] Enekwechi, E. E. "Gender differences in motivation for alcohol use among Niger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lcohol & Drug Education*, Vol.41, No.2, pp.1-10. 1996.
- [8] Cooper, M. L., Russell, M., Skinner, J. B., Frone, M. R., & Mudar, P. "Coping, expectancies and alcohol abuse: a test of social learning formul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101, No.1, pp.139-152. 1992.
- [9] S. O. Jang, "Does early alcohol initiation increase the risk of alcohol use disorder?"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Vol.26, No.1, pp.199-218, 2010.
- [10] J. J. Lim & M. A. Lee, "Living Arrangement and Drinking Behaviors: Analyzing the Differential Effects of Living Arrangement depending on Gender and Age."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33, pp.189-220, 2013.
- [11] E. J. Choi & C. W. Kim, "Factors associated with tobacco and alcohol us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5, No.5, pp.39-51, 2008.
- [12] Vantamay, S. "Alcohol consump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Applying a social ecological approach for multi-level preventions." *South East Asian Journal Tropical Medicine and Public Health*, Vol.40, No.2, pp.354 - 369, 2009.
- [13] Y. P.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service needs of the public aid recipient alcoholics and non-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2, No.2, pp.5-12. 2001.
- [14] Pengpid, S., Peltzer, K., & Van Der Heever, H. "Problem alcohol use and Associated Factors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Africa." *Journal of Psychology in Africa*, Vol.23, No.2, pp.243 - 250. 2013.
- [15] Stewart, S. H., & Devine, H.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and drinking motives in young adul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29, pp.495 - 511. 2000.
- [16] Kuntsche, E., Knibbe, R., Gmel, G., & Engels, R. "Who drinks and why? A review of socio-demographic, personality, and contextual issues behind the drinking motives in young people." *Addictive Behaviors*, Vol.31, pp.1844-1857. 2006.
- [17] Wicki, M., Kuntsche, E., & Gmel, G. "Drinking at European universities? A review of students' alcohol use." *Addictive Behaviors*, Vol.35, No.11, 913 - 924. 2010.

[18] S. O. Jang & S. H. Shin, "Risk Levels of Alcohol Use, Workplace Environment and Factors related to Alcohol Abuse among Employe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27, No.2, pp.469-484. 2008.

[19] J. D. Kwon, D. K. Kim, K. S. Kim, & S. J. Park, "Structural Relationship of Family Cohesion, Stress, Depression and Problem Drinking for the Elderly."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23, No.3, pp.3-25. 2012.

[20] T. Y. Kwon, "A Study o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alcohol use considering psychosocial behavioral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63, No.1, pp.187-215. 2011.

[21] M. S. Yoon, S. H. Kim, & W. S. Chae,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health state, problem drinking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act recipients and citizen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9, No.2, pp.13-26. 2008.

[22] Rehm, J, "The risks associated with alcohol use and alcoholism." *Alcohol Research & Health*, Vol.34, No.2, pp.135-143. 2011.

[23] E. K. Lee, "Factors related to problem drinking of male workers according to occupational class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 pp.375-382. 2015.

[24] S. J. Yoon, "Impact of dep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 on problem drinking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4, pp.11-17. 2016.

[25] Hye-Jeong Hwang, Moo-Sik Lee, Jee-Young Hong, "Related Factors with the Depression in the Rural Peop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2, No. 1, pp. 21-29, 2011.

[26] Nam-Hee Jo, Chun-Hee Seong, "Effects of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and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6, pp. 89-97, 2016.

[27] S. H. Yang & J. H. Kim, "Drinking habits of employees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0, No.10,

pp.363-372. 2012.

[28] Byung-won Min, "An Improvement of Personalized Computer Aided Diagnosis Probability for Smart Healthcare Service System,"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85-91, 2016.

[29] Yoon-Su Jeong, "U-healthcare Service Management Scheme for Big Data of Patient Information,"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5, No. 1, pp. 1-6, 2015.

김 미 영(Kim, Mi Young)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임상사회복지
- E-Mail : mykim@halla.ac.kr